

이번 엔차관 계약은 경제성장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상수도, 전력, 통신 사업을 지원하여 빈곤층⁹⁾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

편, 무이자에 가까운 지원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채무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은 진】

◆ Coface/Hermes, 2001년 경제위기 이후 최초 대 아르헨티나 대형 수출거래 지원

Coface와 Hermes가 아르헨티나의 최대 알루미늄 제련 및 제품생산업체인 Aluar사에 각각 1.5억 달러와 1.1억 달러 규모로 대출기간 15년의 장기수출금융을 제공했다. 동 건은 2001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이후 ECA가 동국에 최초로 지원한 5억 달러 이상의 대형거래로서, 미수은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동국 관련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여타 주요 ECA들도 여전히 단기거래 위주로 제한적인 지원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거래이다.

동 건의 총 금융규모는 5.6억 달러로, 3억 달러의 건설기간 중 운영자금 대출(Pre-

export Financing)과 2.6억 달러의 수출 금융으로 구성되었으며, Coface와 Hermes가 커버한 수출금융에는 각각 Société Générale과 KfW가 대주로 참여하였다. 채권보전은 향후 Aluar사의 수출 대금이 입금될 역외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고, 1.8억 달러의 트리플 A등급 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등 Structured Finance 기법을 활용하였다. 한편, Aluar사는 알루미늄 제품생산능력을 연산 28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확대하는데 동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진 희】

국 제 기 구

◆ EBRD, 향후 5개년(2006~2010) 중기사업전략 제시

EBRD는 지난 5월 21, 22일 양일간 런던에서 개최된 연차총회에서 향후 5개년(2006~2010)간의 중기사업전략을 제시하였다. 1991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EBRD는 민간기업 투자활성화 및 금융산업 지원을 통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를 시장경제체제로 순조롭게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 체코, 폴란

9) 방글라데시는 최근 연 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36%에 달하고 있다.